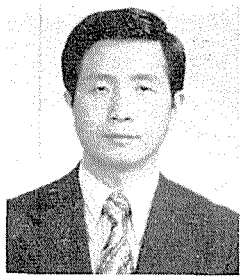
油価下落과 産業政策



徐 光 晃

〈韓国産業経済技術研究院 · 経博〉

Ⅰ. 油価動向과 展望

1. 動向

지난 3月 英国 런던의 임시회의에서 OPEC 産油国들은 일부의 강경한 反対에 부닥쳐 難航을 거듭한 끝에 総産油量의 상한선을 17.5 百万 배럴로 할 것과 公示油価를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引下할 것에 合意를 보았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油価引下는 1960年 産油国들이 石油메이저에 대항하기 위해 OPEC를 창설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油価引下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世界各国들은 놀라운 표정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그럼 왜 OPEC産油国은 油価引下를 하여야만 했으며, 이러한 油価引下에 대해 消費国들이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第1次石油波動은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욤-키퍼戦争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報復措置로 OPEC産油国들이 하룻밤 사이에 基準油価를 배럴당 12달러 선으로 3~4곱절 이상 引上시키고,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몇몇 국가에 대하여는 原油輸出을 一時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에 OPEC産油国의 油価引上을 가능케 하였던 根本的인 要因은 石油需給市場에서 需要가 供給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第2次世界大戦 后 原油가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세계각국들은 앞을 다투어 経済復旧 및 開発을 위해 石油를 대량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풍부한 石油供給은 세계각국의 経済를 에너지 多消費型으로 発展하게 만들었다.

에너지多消費型의 経済構造로

経済発展이 점차로 이루어지면서 石油消費도 이와 비례하여 증대되어 60年代末경에 이르러서는 供給을 앞지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에너지多消費型 経済構造下에서 石油消費가 날로 증가하여 供給不足事態가 초래되던 시기에 때를 맞추어 단행된 OPEC産油国의 油価引上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第1次 에너지波動의 결과 世界経済는 막대한 波及效果를 받아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 상당기간 동안 회복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국들은 나름대로의 国内対応策을 마련하는 한편 先進国을 中心으로 国際에너지機構(IEA)를 설립하기까지도 하였다.

消費国들의 이러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OPEC 産油国이 1979~80年 사이에 公示油価를 한번 더 30달러 線으로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第2次 에너지波動이 발생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波動도 第1次波動 때와 비슷하게 国内政変으로 인해 이란의 原油生産이 하룻밤 사이에 중단되고, 곧이어 이란-이라크戰爭으로 인해 이라크의 原油生産마저 격감되어 世界石油需給市場에서 供給不足 사태가 돌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불과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일찌기 보지 못하였던 에너지危機를 두번씩이나 체험하게 되었고, 세계경제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행히도 세계석유수급시장은 OPEC 産油国들에게 항상 有利한 方向으로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石油消費는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줄어들 뿐만 아니라 代替에너지의 開発拡大로 상대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높은 油価에 자극받아 非OPEC 産油国의 原油生産도 80年代初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같이 石油消費가 에너지消費節約, 代替에너지 利用拡大 등으로 줄어드는 한편, 非OPEC 産油国들의 生産増加 등으로 인해 공급규모는 증가함에 따라 石油需給은 82年初에 들어서면서 오래간만에 均衡状態를 다시 찾게 되었고, 油価도 安定勢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世界経済回復의 지연으로 石油消費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OPEC産油国 및 이란, 리비아를 위시한 OPEC強硬国들이 증산을 시도하게 되어 供給過剰状態마저도 출현하게 되었다.

景気沈滞와 過剰生産

82年 下半期에 접어들면서 소비국들은 現油価水準이 他物価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는 理由를 내세워 油価引下를 강력히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石油会社들은 在庫放出 및 市場操作을 통해 일부 産油国에 油価引下의 압力을 가함과 동시에 이란, 나이지리아 등의 産油国이 現物市場에서 암암리에 割引販売를 시도하게 됨에 따라 油価引下는 시간문제로 대두되었다.

작년 12月 빈会議에서 OPEC産油国들은 예기한 바대로 総産油量의 上限線만 결정하고, 이에 따른 会員国別 生産量割当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非産油国을 비롯하여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은 現物市場에서 割引販売를 계속 공공연히 하는 한편, 石油会社들도 油価引下를 유도하기 위해 구입을 지연시키면서 在庫放出을 계속하게 되자 마침내 OPEC 産油国은 지난 3月의 英国 런던회의에서 예기한 바대로 公示価를 29달러線으로 引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油価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非OPEC産油国인 英国은 油種間의 価格差가 근소한데 불만을 제기하고 나이지리아산 경질유와 적어도 배럴당 1달러 정도 차이가 날때까지 自国産 原油의 価格을 引下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이란 역시 이번 油価引下에 반대하는 立場을 보이면서 계속 할인판매할 구실을 모색하고 있고, 소련 및 이집트도 油価를 28달러로 引下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 展望

일단 油価가 30달러線 이하로 떨어지게 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여 非盛需期에 이르러서는 25달러선까지 무난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전망의 근거로는 첫째, 사우디를 비롯한 몇몇 OPEC온건국들은 한계점에 부닥쳐 더 이상 減産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은 심각한 外貨不足 때문에 쉽게 감산에 협조하지 않고 할인판매를 계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英国은 나이지리아産과의 価格差를 적어도 0.75~1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油価를 계속 인하하겠다고 하는 점이다. 끝으로 현재의 油価수준이 代替에너지 価格수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価格競爭이 되는 수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油価가 이들 전문가의 전망대로 과연 25달러

線까지 하락하고 그 수준에서 얼마동안 머물게 될것인가는 우리들의 최대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번쯤 과거의 油価変動을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油価는 근본적으로 市場需給事情에 따라 결정되고 需給 역시 油価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하여 보면, 이번 油価引下가 세계경제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회복은 石油需要를 창출하게 되므로 금년 下半期에 가서는 石油消費도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세계각국이 지난 1,2次 에너지波動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油価가 대폭으로 하락하였다고 할지라도 石油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供給過剰状態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므로 금년말 혹은 내년초에 가서 需給의 均衡状態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리고 油価도 非盛需期에 접어들면서 25달러線까지 下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와 같은 油価下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現物価만이라도 상당한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84년초에는 需給이 균형을 다시 찾고, 油価도 安定勢를 보일 것이며, 中盤期에는 消費의 増加速度如何에 油価움직임의 向方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Ⅱ. 油価変動과 主要国의 対応策

第1次 에너지波動이 일어날 때까지 石油가 저렴한 価格으로 풍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主要先進国들은 2次大戦의 피해복구사업을 빨리 끝마칠 수 있었고, 또한 상당기간에 걸쳐 높은 成長率을 유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経済·社会発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제는 에너지多消費型 産業構造를 갖게 되어 油価暴騰으로 인해 第1次에너지波動이 발생하자 開途国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경제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지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物価昂騰과 失業増加가 並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자 이들 국가는 이에 대처하면서 에너지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대응책도 아울러 마련했다. 우선 경기대책으로서는 인플레 억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通貨供給과 財政支出을 축소시킴으로써 緊縮政策을 강력히 폈다. 또한 国際収支改善을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둔화된 生産活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서는 企業의 新規投資, 새 技術開発 및 生産方法改善 등을 권장하였다.

적극적인 消費節約運動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거의 모든 국가들은 石油輸入量을 優先的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에너지 消費節約 시책을 강력히 추진시켜 나갔다. 소비절약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각국들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多消費型的인 産業構造를 소비절약형적인 것으로 점차로 개조하는데에 力点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범국민적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의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줄일 것과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계몽시켰다.

일차적으로 소비부문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供給부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主要先進国들은 불안한 中東産油国의 政勢로 인해 原油供給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物量備蓄을 실시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여 OPEC산유국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하였다.

英国,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새로운 油田開発에 박차를 가하여 原油의 大幅적인 増産에 성공함으로써 国内需要를 충당하고도 여분이 있어 상당량을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対内的으로는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규모 投資를 하고 石油依存度를 축소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代替에너지 開発에 있어서는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石炭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고, 原子力 및 大陽熱을 활용한 에너지개발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연

구가 시작되었다.

主要国別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政策対応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美国의 対応策

美国의 경우는 政府가 직접 産業政策을 수립하여 企業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金融·税制上의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발전을 돕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신속하게 에너지省을 세워 代替에너지開発과 에너지 節約技術開発에 民間企業이 적극 참여하도록 막대한 資金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価格을 점진적으로 自律化시켰다.

이 결과 에너지 産業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고, 반면 에너지 소비가 억제됨에 따라 鉄鋼, 非鉄金屬, 化学, 유리, 시멘트 등의 에너지 多消費산업들은 斜陽化되는 추세에 있었다. 앞으로는 非에너지素材産業 혹은 製品生産에 적은 에너지 投入을 요구하는 산업이 価格競争力에 있어서 절대적인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업의 관심과 투자는 機械, 電子, 遺伝子 등의 에너지절약적이면서도 기술집약적인 산업 쪽에 모이게 되었다. 물론 美国이 에너지파동 이후 이와같은 尖端技術産業 육성에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은 비단 높은 에너지 費用 때문만은 아니고, 既存製品의 価格과 労動力면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비교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한 때문이다.

西独의 対応策

西独의 경우도 美国과 비슷하게 政府가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多消費型的인 産業構造를 빠른 기간내에 절약형적인 구조로 개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역시 西独도 石油依存度를 줄이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기존시설 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代替에너지 利用拡大로 石炭 및 가스 生産이 늘어나 発電 및 産業부문 등에서 이들의 使用이 증가하였다. 西独은 이미 石炭을 이용한 代替에너지 開発에 상당한 기술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리한 立場에 있다. 産業에 있어서도 기계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은 한층 더 활기를 띠는데 반해 鉄鋼등의 多消費 産業은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日本의 対応策

日本은 美国 및 西独과는 달리 거의 政府의 主導下에 経済発展을 이룩한 국가이다. 第1次 에너지波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日本은 経済構造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시키면서 에너지 절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代替에너지 開発에도 박차가 가하여져 石炭 및 가스의 使用이 확대되었으며,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도 촉진되었다. 이같이 에너지 소비전절약 및 利用合理化가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 多消費型的인 鉄鋼, 비철금속, 石油化学 및 化学 등의 産業生産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電子, 機械 등의 절약형 산업이 부상하기 시작하여 日本経済를 주도하면서 나아가 世界市場을 석권할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台湾의 対応策

台湾은 経済的으로 美国, 西独, 日本 등의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開発途上에 있기 때문에 政府의 主導下에서 経済開発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라는 経済安定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重化学工業이 무리하게 급속히 추진되지는 않아 1次 에너지波動時에도 비교적 피해를 적게 받았다. 또한, 石油 및 電力会社를 公社化하여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택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供給을 할 수 있었던 것도 台湾이 피해를 적게 입은 이유중의 하나였다. 重化学工業 육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에 重復投資나 非效率的인 投資는 거의 발생치 않았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技術集的約 高附加価値産業에 집중되었다.

以上 国別로 간단히 살펴 본 바와 같이, 主要

先進国들은 第1次 에너지波動으로 인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 에너지 다소비형적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에너지절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高附加価値 産業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이들 국가는 第2次 에너지波動에 그런대로 무난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고 피해도 적게 받았다.

安定油価를 바라

이번 油価引下에 대해서도 세계각국은 그것이 世界経済回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油価의 대폭적인 하락보다는 安定된 適正油価를 바라고 있는 立場이다. 이유로서는 첫째 이번 油価下落으로 인해 이제까지 막대한 투자와 장시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에너지 節約型 경제구조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편 油価下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침으로써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代替에너지 開発이 졸지에 중단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세째 빈번한 油価変動은 不確実性을 조성하여 世界経済를 크게 교란시킴으로써 각국의 안정적 経済発展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Ⅲ. 우리의 産業政策

1. 1.2次波動과 우리의 対応策

70年代初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重化学工業育成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麗川의 석유화학단지 및 昌原의 기계공업단지의 조성은 重化学工業 육성시책에 따라 세워진 대표적인 例가 되겠다. 第1次 에너지波動이 이러한 重化学工業의 開発이 완성되어 가동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는 石油의 海外依存度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先進国들보다는 비교적 적은 피해를 받았다. 또한 原油輸出로 인해 흘러 들어 온 막대한 外貨를 배경으로 中東産油国들이 대규모 경제개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과 때를 맞추어 우리의 建設業이 中東産油国에 진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 들여왔다. 中東進出로 인해 얻어진 外貨는 그 당시 国際収支悪化로 역경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78~79年의 경제호황을 가져온 주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建設의 中東進出이 기대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어 막대한 外貨를 가득, 통화공급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우리 経済는 일찌기 보지 못하였던 호황국면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経済가 이렇듯 第1次 에너지波動을 무난하게 극복하게 된 결과 에너지 危機의 심각성을 저평가 하게 됨으로써 第2次 에너지波動 때에는 세계각국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다. 先進国의 경우는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이 주효하여 석유 소비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었음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重化学工業이 가동단계에 돌입하고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면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오히려 높아갔던 것이다.

경기호황은 初期段階에서는 우리 経済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生産의 바틀네크와 숙련공 공급부족사태를 빚어내면서 인플레현상마저 유발하게 되었다. 이 때에 第2次 石油波動이 발생하였고, 최악의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에너지 위기를 맞은 우리 経済는 인플레 심화와 함께 負의 成長까지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에너지波動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자 政府는 重化学工業의 조정을 시도하면서 代替에너지 利用拡大 및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적인 電子 및 機械産業을 적극적으로 육성코자 하였고, 최근에는 尖端産業의 육성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経済는 어려운 역경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국제자원가격 안정, 수입 감소, 물가안정 등 여러 호조건에 힘입어 安定을 다시 찾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면서 世界景気回復만 기다리고 있다. 또한 政府 一角에서는 경제적 재도약을 빠른 시간내에 기필코 달성

하기 위해 保護主義的 색채가 짙은 현재의 産業 및 貿易政策이 우선적으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政府 保護下에서의 산업육성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 경제는 이미 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市場經濟의 原理에 입각한 自由競爭의 체제가 산업, 무역부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産業政策이 기본적으로 수정되어 가는 마당에 油価가 대폭 下落하는 逆오일쇼크가 발생하였다.

2. 앞으로의 政策方向과 課題

우리 經濟가 이번 油価下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産業政策은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가 당면한 主要課題 중의 하나이다. 어떤 주장 혹은 대책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선 몇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번 油価下落은 일시적인 공급과잉 사태로 야기된 결과이며, 수요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곧 上昇할 수 있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長期的으로 볼 때, 原油供給은 有限한 것이기 때문에 代替에너지 開発은 꼭 必要한 것이며, 開発에는 많은 시간과 投資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中東進出로 얻어진 外貨를 産業合理化 및 代替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인플레만 조장시키게 되어 우리 經濟는 第2次 에너지波動 때에 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産業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에너지 節約 및 기술집약적이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高附加価値産業을 일정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보호육성하여야 하겠다. 동시에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은 점진적으로 사양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우리의 經濟는 市場經濟의 原理에 입각한 自律的 競爭体制로 전환하여야 하며, 企業의 경쟁력제고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政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과 체질강화에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 혹은 협조를 하여야 되겠다. 또한 기업도 지금까지 행하여 온 불건전한 경영은 불식하고, 오로지 경쟁력 제고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合理的 經営만을 추구하여야 되겠다. 셋째, 경제의 자율화 혹은 自由化가 중요시되므로 産業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는 점차 축소되어야 하며, 政策産業만 제외하고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결정은 企業의 책임하에 두어 산업발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되겠다. 네째, 代替에너지 개발 및 절약기술 개발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에너지의 安定的 供給을 위해서는 原油의 경제적 備蓄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經済政策의 基本方向에 맞추어 国内油価도 自律化함으로써 에너지消費의 価格弾力性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産業構造의 調整 혹은 合理化는 부작용을 유발시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빨리 달성될 것으로 믿어진다. 여섯째, 原油 및 油類製品에 부과되는 税金은 가능하다면 目的税化하여 앞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第3의 에너지危機에 대비하여야 한다. 끝으로 에너지 산업이 民間企業의 주도하에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政府는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너와나의 식량절약 이룩되는 식량자급